

한국의 역사 교과서에 나타난 러시아사 서술양상

인천대학교 역사교육과 신유아

I. 한국사 교과서의 러시아사 서술

1. 특징

- ▶ 근현대사 부분의 서술 비중 높음
- ▶ 1910년 이전: 제국주의 열강
- ▶ 일제강점기: 국외 독립운동의 무대
- ▶ 해방 이후: 북한 정권 수립 지원

2. 서술 사례

▶ 나선정벌

조선에서 북벌 운동이 무르익어 가고 있을 때, 시베리아 지방에는 러시아 세력이 밀려왔다. 러시아 세력의 침략으로 위협을 느낀 청은 정벌군을 파견하고, 아울러 조선에 원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조총 부대를 출동시켜 큰 성과를 거두고 돌아왔는데, 이를 나선 정벌이라고 한다 (금성출판사, 172p)

▶ 황준헌(黃遵憲)의 조선책략 (朝鮮策略)에서
방아책(防俄策) 제시

➡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

▶ 1884년 청의 알선 없이 조선과 수교

➡ 조 · 러 수호 통상 조약 체결 (베베르 활약)

▶ 거문도 사건(1885)

➡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조선의 거문도를 점령한 사건

▶ 삼국간섭(1895)

➡ 청 · 일 전쟁 후 일본이 요동반도를 차지하자 러시아와 독일, 프랑스가 압력을 가해 요동반도를 청에 반환하게 함

→ 조선 : 러시아를 이용하여 일본 견제 추진

▶ 아관파천(俄館播遷, 1896)

을미사변 후 신변의 위협을 느끼던 고종은 일본군이 의병
진압을 위해 지방으로 파견된 틈을 타서, 경복궁에서 러
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파천을 단행하였다
(천재교육, 203p)

- 러시아의 영향력 강화
- 열강의 이권침탈 본격화
- 독립협회의 이권수호 운동

▶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정세

청 · 일 전쟁의 패배로 한반도를 둘러싼 경쟁에서 청이 탈락한 가운데, **러시아와 일본**은 대한 제국과 만주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대립**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라오동 반도의 뤼순을 조차하는 등 만주의 이권을 독차지하려고 하였다. 이에 세계 곳곳에서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경계하고 있던 영국은 **제1차 영·일 동맹**을 맺어 일본을 지원하였다(1902). 이 무렵 러시아는 압록강 하류 용암포를 점령하여 군사 기지를 만들려고 하였다(**용암포 사건**, 1903). 러시아의 팽창이 한반도의 장악과 만주의 이권 확보에 위협이 된다고 우려한 일본은 영국의 지지를 등에 업고 전쟁을 준비하였다. 마침내 일본은 뤼순과 제물포에 있던 러시아 군함을 기습 공격하여 전쟁을 일으켰다(**러·일 전쟁**, 1904.2.).

(천재교육, 212p)

- ▶ **연해주(블라디보스토크): 독립운동 기지 건설**
(대한 광복군 정부 등)
- ▶ **자유시(스보보드니): 대한독립군단 이동 → 러시아의 적색군이 독립군을 무장해제하면서 많은 사상자 발생(자유시 참변, 1921)**
- ▶ **러시아 혁명과 사회주의 국가 수립 → 코민테른과 사회주의 독립운동과의 관련성**
- ▶ **1937년 스탈린에 의한 한인 강제 이주**
→ 약 17만 명의 한인이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강제이주

▶ 광복 이후 소련사 관련 서술

- ▶ 미 · 소 양군 진주 (38도선 경계)
- ▶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 미 · 소 공동위원회 결렬
- ▶ 북한 정부 수립 지원
- ▶ 6 · 25 전쟁의 배경
- ▶ 냉전 심화
- ▶ 개혁 · 개방정책

II. 세계사 교과서의 러시아사 서술

1) 특징

- 키예프 공국으로 등장
- 표트르 대제 시기부터 본격적인 서술
 - 서유럽에 비해 발전이 늦었음
- 러시아 혁명, 냉전 체제에 대한 서술 비중 높음
- 개혁 · 개방정책 및 1991년 소련 해체 시기까지 다룸

2) 서술 사례

▶ 슬라브 문화권의 형성

동슬라브족은 오늘날의 러시아 인으로 9세기 말 노르만족이 세운 키예프 공국 등의 지배를 받았다. **키예프 공국**은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하며 그리스 정교를 받아들이고,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만든 키릴 문자를 사용하였다. 건축에서는 비잔티움 양식의 영향을 받은 **성 소피아 성당**을 키예프에 세웠다. 그러나 13세기에는 몽골이 침략하여 키예프 공국을 무너뜨리고 **킵차크 한국**을 세웠다.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한 후 15세기경부터 모스크바가 교역의 중심지로 발달하고, **모스크바 대공국**의 힘이 커졌다. 이에 모스크바 대공국의 **이반 3세**가 몽골을 물리치고 동북부 러시아를 통일하였다. 그는 비잔티움 제국의 계승자를 자처하여 스스로를 '**차르**'라고 칭하였으며, 농노제를 강화하여 전제 군주제의 기반을 확립하였다.

(금성 출판사, 130p)

▶ 동유럽의 절대왕정

오랫동안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러시아는 17세기 말 **표트르 대제** 시기에 강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표트르 대제는 직접 서유럽의 여러 나라를 시찰하고 네덜란드와 영국 등의 선진 문화와 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내정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는 강화된 군사력을 바탕으로 오스만 제국을 압박하여 흑해 북부로 진출하였고, 시베리아 경영에도 힘써 청과 **네르친스크 조약**을 맺고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또한, 스웨덴과의 북방 전쟁을 통해 발트 해로 진출하는 데 성공하였고,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수도로 삼았다. 18세기말, **예카테리나 2세**는 계몽전제 군주를 자처하며 내정개혁을 단행하였으며,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함께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였다.

(금성출판사, 18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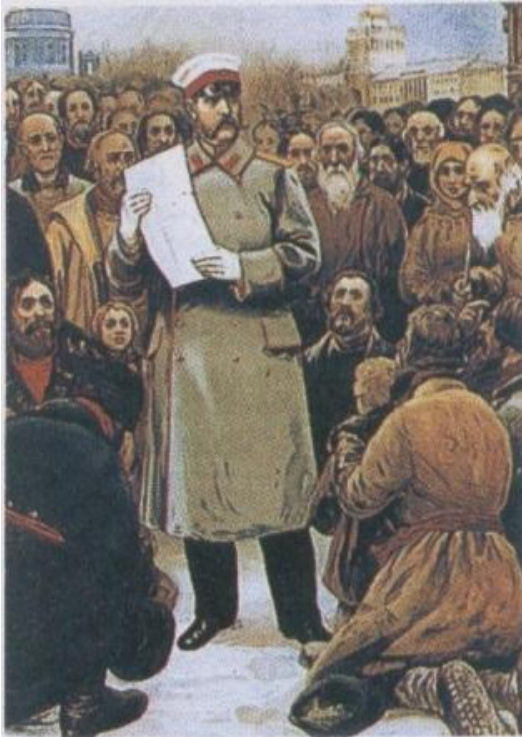


조선소에서 일하는 표트르 대제

적극적인 서유럽화 정책을 추진한 표트르 대제는 대규모 시찰단을 서유럽에 파견하였고, 스스로도 시찰단의 일원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영국과 네덜란드에서는 직접 조선소에서 노동자로 일하기도 하였다.

군주 정치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인민으로부터 자연적인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최고선에 도달하도록 그들의 행위를 바로잡는 것이다.
-예카테리나 2세의 훈시-

▶ 19세기 러시아



↑알렉산드르 2세의 농노 해방령 (1861)

- 정치 및 사회체제 낙후 (농노제 유지)
- 데카브리스트의 봉기, 크림전쟁
- 알렉산드르 2세의 개혁(농노해방)
- 브나로드 운동, 나로드니키 등장

▶ 러시아 혁명

(배경)

크림 전쟁에서 패배한 후 내정 개혁에 나선 러시아는 19세기 후반부터 공업화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공업 도시가 성장하고 노동자 계급이 등장하였다. 한편, 지식인들은 차르가 통치하는 전제 정치 체제를 극복하고 입헌 정치를 실시할 것 등의 개혁을 요구하고,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하기도 하였다. 러시아 사회 민주 노동당을 만든 **레닌**이 대표적이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낙후된 농업사회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였다. 게다가 러·일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시위에 나섰고, 정부가 이를 강경하게 진압하면서 수 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피의 일요일 사건**, 1905). 이 사건을 계기로 대규모 시위와 파업 등이 발생하자, 차르 니콜라이2세는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두마(국회)의 설치** 등 개혁을 약속하였다. 하지만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등 전제정치는 계속되었고, 국민의 생활도 나아지지 않았다.

(전개과정)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러시아는 독일군에게 거듭 패하고, 병력과 물자 소모가 커지면서 국민의 생활도 열악해졌다. 결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면서 노동자·병사들이 대대적인 시위에 나섰고(1917. 3.), 그 대표들이 **소비에트(평의회)**를 결성하고 혁명을 전개하다. 그 결과 니콜라이 2세가 물러나 제정이 붕괴되고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3월혁명**, 러시아력으로 2월 혁명).

그런데 임시 정부는 전쟁의 종단을 바라던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하고 전쟁을 계속하였다. 국민들은 임시정부에 등을 돌렸고, 레닌은 모든 권력은 소비에트가 가져야 하고 전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시정부를 비판하였다.

결국 레닌은 그를 따르는 '**볼셰비키**'를 중심으로 봉기하여 임시 정부를 타도하고 소비에트 정부를 수립하였다(11월 혁명, 러시아력으로 10월 혁명). 11월 혁명의 성공으로 러시아 혁명은 마무리되었다. 이후 레닌은 ***브레스트리토프스크조약**(1918)을 맺고 전쟁을 끝냈으며, 의회를 해산하고 볼셰비키가 주도하는 일당독재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토지와 주요 산업의 국유화, 여성 참정권보장 등 **사회개혁**을 추진하였다

(소련의 탄생)

러시아 혁명에 반대하는 반혁명파의 공격으로 내전이 발생하자, 소비에트 정부가 식량과 노동력을 징발하여 전투를 치르면서 농민층의 불만을 샀다. 이에 레닌은 **신경제 정책(NEP)**을 실시하여(1921) 시장 경제를 일부 도입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반혁명 세력을 진압한 후 정치적인 안정을 회복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을 수립하였다(1922).

이에 앞서 레닌은 사회주의 세력의 국제적인 단결이 필요하다고 여겨 제3 인터내셔널을 결성하였다(**코민테른**, 1919). 제3 인터내셔널은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식민지의 민족 해방 운동을 적극 지원한다고 선포하였다. 이것은 사회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데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레닌의 뒤를 이어 집권한 **스탈린**은 신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1928) 토지의 집단 농장화, 공장의 국유화 등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강화하였으며, 중화학 공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은 농업 집단화 등에 대한 불만을 탄압하는 등 비판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독재체제**를 강화하였다

(비상 출판사 254~255p)

자료

-차르에게 보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노동자들의
청원서(1905) :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 평등하고 자유
로운 선거권 보장 호소 (천재교육, 교학사)

-신경제 정책 : 통제 경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실
시한 정책으로 곡물 강제 징발을 폐지하고 농업 등 소규
모 경영에서 사적 소유 및 경영을 도입한 정책

(금성출판)

-스탈린의 독재정치 :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으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으나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하였다.

(금성출판)

▶ 냉전 체제

- 코민포름과 코메콘 창설, 베를린 봉쇄(1948), 바르샤바 조약기구(WTO) 창설, 미국과의 핵무기 경쟁(쿠바 미사일 위기), 6·25 전쟁

▶ 소련의 개혁과 개방

- 스탈린 사망 후 흐루쇼프의 데탕트, 고르바초프의 개혁(페레스트로이카)과 개방(글라스노스트)정책, 엘친의 소련 연방 해체(1992),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

III. 러시아사 관련 개설서

- ▶ 니콜라이 랴자노프스키, 이길주 옮김,
‘러시아의 역사 I : 고대-1800’, 까치, 1991.
- ▶ 니콜라이 자자노프스키, 김현택 옮김,
‘러시아의 역사 : 1801-1976’, 까치, 1982.
- ▶ 제프리 호스킹, 김영석 옮김, ‘소련사’, 흥성사, 1988.
- ▶ 슐긴, 꼬쉬만, 제지나 지음, 김정훈, 남석주, 민경현
옮김, ‘러시아문화사’, 후마니타스, 2002
- ▶ 이무열 지음, ‘러시아사 100장면’, 가람기획, 1994.
- ▶ 김경묵 엮음, ‘이야기러시아사’, 청아출판사, 1995.